

국가의 안보자산, 방위산업




국가 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과 자주국방의 초석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방산업체 임직원 및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이 방위산업 육성과 진흥을 통해 자주국방력 건설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상근부회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개인의 영예로 생각함과 동시에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0년도는 한반도의 안보환경과 남북관계에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았던 한 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으로만 여겨졌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 남북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 복원 합의 등 계속된 일련의 행사로 남북 통일이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는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이 지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일본, 중국 등 역내 국가들이 전략적 협력과 견제의 구도하에 군비경쟁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어 안보환경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장차전에 대비한 고도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주축으로 한 방위산업의 제도약은 민족의 생존과 긍지를 지키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손자병법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 국가자존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자주국방과 전쟁억지력의 핵심인 방위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위산업은 70년대 초반 태동해 짧은기간 국민적 성원과 정부와 업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의 기본 병기를 자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오늘날 가장 중요한 전쟁억지력으로 성장, 발전했지만, 최근 방산업계는 조달 물량의 감소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방산 전용시설의 유희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기반 기술과 선진 기술력이 취약해 첨단장비의 독자적 개발·생산이 힘든 상태에서 방산선진국들은 자국 방위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보호주의 장벽을 점점 높이고 있는 추세이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방위산업은 한국형 첨단무기 체계 개발을 위해 다시 도전해야 하고 이를 통해 관련 기술산업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本 會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방산업계와 관계기관간의 교량역할에 盡力하여, 방산업체의 애로 및 문제점을 타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방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와 함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邁進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年 4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李 洙 翼